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3월 17일(주일) 제1237호



사진은 지난해 러브소나타 후쿠오카에 참가한 봉사자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당신과 함께’

5월 15~16일 일본 시즈오카 그랜십 대환 오늘(17일)부터 4주 동안 참가자 모집

러브소나타 서울본부가 오늘(17일)부터 4월 7일까지 4주 동안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와 러브소나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는 ‘당신과 함께’를 주제로 5월 15~16일 일본 시즈오카 그랜십 대환에서 막 오른다. 15일 리더십포럼(니혼다이라호텔)과 가스펠나이트(그랜십 중환), 16일 교회세미나(그랜십 회의홀)와

러브소나타 집회가 이어진다.

러브소나타 전야제인 가스펠나이트에서는 가와구치 류타로 성도(hiba.관동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 이기복 교수, 오오카와 목사(아마토갈보리체펠)가 강의한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영표(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배재철(테너), 김영미(소프라노),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안도

니오 코가(기타리스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시즈오카 현지 실행위원회는 지난 2017년 열린 두 차례 설명회 이후 현재까지 실행위원회를 14차례나 개최했다. 현재까지 51개 교회가 이번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스리아사노 카즈오 목사(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실행위원장)는 “시즈오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

함을 보여주는 러브소나타 집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혼슈(본섬) 중앙에 위치해 있다.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거리인 교통 요충지이다. 태평양과 후지산(3,776m)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시즈오카는 세계적인 차(茶)의 명산지로 일본 녹차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주일에는 대중교통 및 개인 컵 이용

오늘(17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이 그 대상이다.

오늘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전만광장에서는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이 플라스틱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한편, 온누리교회는 지난 3월 3일(주일)부터 환경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고, 일회용 컵 대신 개인용 컵(텀블러)을 사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수거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 참가자 모집

4월 3~5일 서빙고 본당 및 부속실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막 오르는 2019 회복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3월 24일까지 등록하거나 10인 이상 단체로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박성심 사모(심리치료사), 채규만 교수(중독치료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박재연 소장(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선택강의에서는 이관

직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이지선 교수(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남윤영 박사(정신과 전문의), 조병민 목사(지구촌교회 상담센터장), 이정환 목사(양재 상담센터), 최용준 목사(서빙고 상담센터), 성주명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김지홍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구인유 집사(온누리 회복사역기쁨의샘), 장순우 박사(정신과 전문의)가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문의: 02-3215-3355, 3532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오늘,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오늘(17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개최한다. 낙태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라는 것을 알리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낙태죄 폐지를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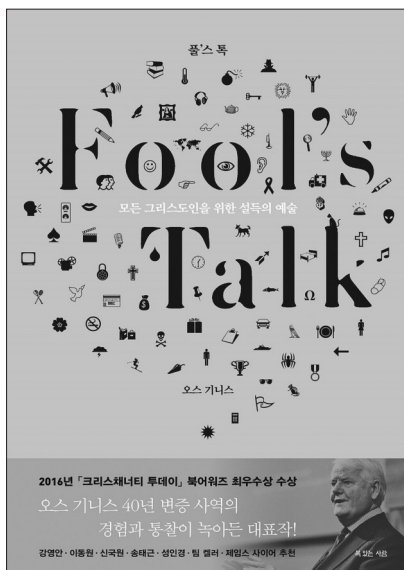
한 관계자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라도 낙태 금지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 읽어주는 목사

기독교의 창의적 설득 ‘변증’

〈풀’스 톡 (Fool’s Talk)〉



〈풀’스 톡 (Fool’s Talk)〉
오스 기니스 저 | 북있는사람 | 19,000원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급변의 요소가 가득한 이 시대를 복음을 위한 ‘기회의 시대’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 시대는 바야흐로 ‘웅대한 변증의 시대’이다. 인터넷과 매체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두가 자

를 드러내고, 설명하고, 팔고, 변호하는 세속 변증자가 되었다. 삶의 목표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의 대변자인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기독교가 세상과의 소통능력과 성경적인 진리의 변증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스 기니스는 그 사실을 〈풀’스 톡 (Fool’s Talk)〉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은 단연 “변증의 신앙”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새로워진 매체를 통해 변증의 도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일방적 선포나 공격적인 논증이 아니라 창의적 설득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말에서부터 저자는 기독교 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적 변증은 예술성이 회복된 창의적 설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닌 진리의 문제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의적 설득은 복음의 가장 깊고 충만한 진리인 창조, 타락, 성육신, 십자가, 성령을 통해 메시지와 전달 방식이 구성되어야 한다.

창조적 관점에 충실한 기독교적 설득은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독

한 개성을 존중하는 방식의 접근이다. 타락적 관점에서의 기독교적 설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체들 안에 있는 불신의 해부를 통해 진리에 대한 고의적 오용을 보게 하는 것이다. 성육신적 관점에 충실한 기독교적 설득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인격 대인격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 관점의 기독교적 설득은 메시지가 십자가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전달 방법도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을 가져오는 창의적인 전환의 설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이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설득 (Fool’s talk)이다.

성령이 충실한 기독교적 설득은 결정적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다. 오직 충만한 확신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독교의 창의적 설득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인 이유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기독교적 변증은 전도와 제자도가 연합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득한 불신의

마음은 능동적, 의지적, 고의적, 이기적이다. 이러한 불신의 위력을 무시한 채 지적 논증만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변증의 목표는 논쟁이나 굴복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 중생, 영적 거듭남이다. 기독교 변증이 삶에 뚫린 구멍을 채우고, 영적 갈망을 일깨워주는 창의적 설득이 될 때, 변증과 전도와 제자도가 연합되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벧전 3:15).

이 말씀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기독교적 설득은 소수의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이 책이 집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활짝 편 손’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승완 목사
(수원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창조과학은 유사과학이잖아요?

답: “유사과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대중을 현혹하는 거짓이고, 창조과학은 성경적 시각으로 과학적 발견을 설명하는 사실입니다.”

유사과학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이비 과학이다. 유사과학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대중을 현혹시키는 거짓이다. 창조과학을 유사과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과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 것이다. 과학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류는 과학을 통해서만 사실 또는 진리를 알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오류는 보이는 물질세계가 전부라는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물론 과학은 보이는 물질세계의 질서를 연구하는 좋은 학문이다. 그러나 과학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과 주관에 개입될 수밖에 없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의 능력이 엄청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DNA정보체계가 상상을 넘는 복잡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주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과학 지식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다.

창조과학은 성경말씀이 진리임을 전제하고, 과학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과학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은 일반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성경적 시각으로 과학적 발견을 설명할 수 있다. 창조과학을 유사과학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객관적이며, ‘창조론’은 종교이며 주관적이라는 이 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진화론이 질서를 연구하는 객관적인 과학이라면 어떻게 질서를 연구해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진화론 자체가 일반적인 과학의 정의에도 맞지 않다. 과학은 검증할 수 있고 반증 역시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진화론은 진화 자체를 절대 진리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

서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려는 강력한 무신론적 믿음체계라고 볼 수 있다.

창조과학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우주 연대를 6천년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아담 창조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1만년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을 우주 연대도 그렇다는 주장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창조과학자들은 거대한 우주의 확장이 지구에서 경험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은 상대성이론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우주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빅뱅이론에 근거한 오래된 우주연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빅뱅이론 자체가 증명할 수 없는 엄청난 가정을 전제로 한 이론일 뿐이며, 우주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이론에 맞지 않는 관찰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우주의 많은 현상들이 젊은 우주를 지지하는데 작은 위성들에서도 나타나는 활발

한 화산활동이 그 중 하나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일반 과학자들도 한 번의 빅뱅으로 이러한 놀라운 질서를 가진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질서를 일부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에 매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과학자들은 온 세상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과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과학의 한계와 그 한계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중에 미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ow) 대위가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한국에 온 윌리엄 얼 쇼 선교사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어린 시절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 해군에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1947년 전역한 이후 다시 한국에 와서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해양경비대사관학교 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관으로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철학과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을 8개월 앞두고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학업을 내려놓고 파병을 자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파병을 자원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전쟁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가 흔쾌히 도우려 가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에 선교사로 가려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했고, 한국 지리에도 밝았기 때문에 해군 정보장교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탈환작전에 참가했다가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에 매복 중인 인민군의 공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선교사였던 부모님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2010년 은평감리교회의 후원으로 은평구 녹번동 평화공원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을 평양에서 보낸 것뿐인데 한국을 조국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자신만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중보기도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같은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아내는 두 자녀와 함께 서울에 와서 이화여대 교수로, 그의 아들은 서울법대 교수로 섬겼습니다. 손자는 경기도 오산에서 공군 장교로 대를 이어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에게 한국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공동체 의식을 부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 지역을 모두 점령했을 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속였습니다.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중부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여러 작은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비했습니다. 동맹을 맺은 남부 지역 국가들이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 족속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즉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가는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불필요해보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남부 지역 동맹국에 의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고, ‘여차피 가나안 족속이고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과 길갈은 약 38km가 떨어져 있었고, 오르막길에 1,200m나 되는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가서 남부 지역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

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결단을 했습니다.

최소화 VS 최대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 낼 자가 없을 것이다’”(8절).

여호수아가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헌신을 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묻게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군가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5리를 더 가야 합니까? 어쩌면 불필요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합니까? 그것은 어떤 관계든지 자신의 의무를 최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최대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두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주어지면 최소한의 일만 하려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 최대한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최대한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의 헌신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무후무한 기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벤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 큰 혼란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큰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재가 임하면 큰 평화와 담대함과 용기가 임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큰 용기와 담대함이 임했고, 대적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혼란이 임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들에게 임한 두려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자신들에 대하여 싸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적들은 얼마나 엄청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겠는가? 누가 하늘의 권능과 다룰 수 있으며 또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겠는가? 또 누가 하늘의 권능에 대항하여 담장을 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대적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은 혼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벤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11절).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우박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눈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며 우박의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를 위해,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욥 38:22-23).

하나님의 개입 덕분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밤새 행군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5개 남부 지역 연합군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대적들이 있었고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합니다.

(13면에 계속)

“그래도 나는 결혼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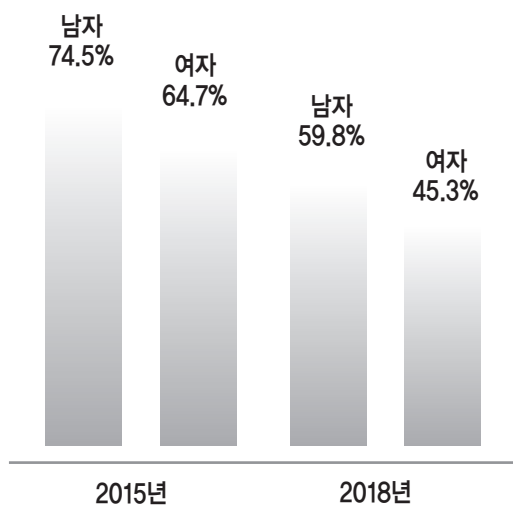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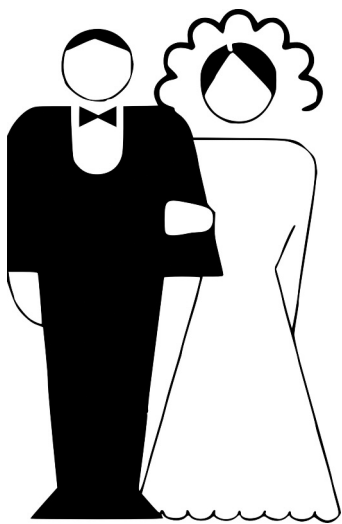
크리스천 청년들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솔직한 속내
솔루션, 잔소리 그만! 조건 내려놓고! 교육과 양육!
(기성세대) (청년들) (교회)

“결혼은 빠센 거야. 얼마나 빠센 거냐면 넬슨 만델라도 이혼했거든. 넬슨 만델라는 지옥 같은 감옥생활을 27년이나 했는데 마누라하고는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배우 크리스 록이 어느 토크쇼에서 한 말이다. 넬슨 만델라조차도 결혼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결혼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다. 결혼 전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20~30대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부동의 1위가 “결혼 언제 할거니?”이다. 생각만 해도 설레고 행복할 것 같은 결혼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크리스천 청년들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크리스천 청년들마저도 결혼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결혼 의향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혼인한 부부가 2만6,800명으로 전년보다 800명(-2.9%) 감소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전년(26만4,500건)보다 6,800건이나 줄었다. 이 또한 사상 최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혼인 건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이다. ‘결혼은 필수’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비혼주의가 계속 늘고 있다. 미혼(未婚, 아직 결혼하지 않음 혹은 그런 사람)과 비혼(非婚, 결혼하지 않음 혹은 그런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 ‘아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N포털사이트에서는 ‘미혼’이라는 어휘가 혼인은 원래 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며 ‘혼인 상태가 아닌 미혼보다 ‘비혼’을 주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년)이 우리나라 20~44세 미혼 인구 2,383명(남성 1,096명, 여성 1,287명)에게 결혼 의향을 물었더니 남성 59.8%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3%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3년 전 조사결과 남성 74.5%, 여성 64.7%에 비해 각각 14.7%포인트, 19.4%포인트 줄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내놓았다. 모바일

일 잠금화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NBT가 고객 1,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인식 관련 설문조사’에서 미혼 남녀 10명 중 9명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청년들, 결혼을 말하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 ‘크리스천 결혼문화팀’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여호수아, SNS, S브릿지공동체) 소속 싱글 청년 30명(20대 후반~40대 중반)을 만나 결혼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들어봤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결혼으로 인한 부담과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A자매(30세, 여호수아공동체)는 “언니가 시댁과의 관계, 육아 문제, 경력단절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결혼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B자매(38세, 여호수아공동체) 또한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녀는 “결혼은 여자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다”면서 “희생을 감내할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C자매(S브릿지공동체)는 “엄마처럼 희생적으로 살 자신이

없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둘째,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D형제(S브릿지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버렸다”면서 아쉬워했다. E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직장을 얻고 나서야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F형제(S브릿지공동체)는 “현실적으로 서울 시내에 집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여자친구 부모님이 ‘자네 (집 마련할 돈도 없이)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고 씩씩해 했다.

셋째, 크리스천이라서 결혼이 더 어렵다. G형제(41세, SNS공동체)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사귀다 헤어지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애를 주저한다”고 털어놨다. H형제(29세, SNS공동체)는 “크리스천들은 배우자 조건에 세상에서 따지는 조건에다 신앙까지 더하다보니 세상 사람들보다 문이 더 좁다”고 지적했고, I형제(여호수아공동체)도 “크리스천에게는 ‘거룩’이라는 배우자 조건이 따라 붙어서 솔직히 결혼하기가 더 어렵다”고 꼬집었다.

크리스천 결혼문화팀이 만난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크리스천의 배우자 조건이 결혼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이 적잖았다. 교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

청년들의 말 속에 그 해답이 있다

그렇다면 결혼을 위해서 기성세대, 청년들, 교회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청년들의 말 속에 그 해답이 있다.

기성세대들은 미혼 청년들에게 “왜 결혼 안하느냐?”라는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결혼은 선택’이라는 청년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 또한 말아야 한다. 비혼에 긍정적인 젊은 세대에게 “모두 너를 위해서”라는 잔소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들의 생각과 인생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J자매(S브릿지공동체)는 “부모님이나 어른들, 직장에서도 결혼문제로 스트레스를 준다”면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결혼의 주체가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변화는 ‘너무 높은 배우자 조건을 내려놓는 것’이다. 결혼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너무 높은 배우자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조건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교육과 양육을 해야 한다. K자매(S브릿지공동체)는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틀을 깨주는 세미나와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회공동체에 소속되기 전까지 비혼주의자였다는 M형제(S브릿지공동체)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부탁했다. F형제(S브릿지공동체) 또한 공동체에 소속 되고 나서 결혼을 꿈꾸게 되었다. 그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며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크리스천들이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3천 달러(1977년 GNI 수치) 시대에 결혼했던 부모 세대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갈수록 결혼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꼭 가야만 한다. 교회가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힘이 되어줄 것이다. F형제가 꼭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었다. 그 형제의 말 한마디가 이 시대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일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결혼하고 싶다!”

크리스천 결혼문화팀(가정사역본부)

문의: 김태오 총무 010-5628-8872

전문가 기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기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홍보대행사 대표,
칼럼니스트)

화려한 웨딩박람회 이어 결혼 청첩장이 오기 시작하는 계절 3월이다. 얼마 전 YTN에서 외신 보도를 인용해 ‘볼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단 한 마리만 남아있던 희귀종 개구리가 마침내 짝을 찾았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올해

열한 살로 박물관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세후 엔카스 물개구리 ‘로미오’는 기후 변화와 수로 건설, 전염병 탓에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다. 10년 넘도록 동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동물학자들의 노력으로 서식지가 발견되어 암컷을 찾아냈다는 소식이다. 로미오와 짝짓기를 하게 된 암컷 개구리에게는 ‘줄리엣’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생태계의 경사이다.

사슬처럼 엮여있는 취업, 결혼, 출산

한국 속담에 “짚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데 짚신보다 존귀한 생명체가 우여곡절 끝에 짝을 찾았더니 기쁜 일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 청년들은 짚신이나 희귀종 개구리보다 짝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짝을 찾아도 결혼하기가 어렵다. 청년 취업률이 낮으니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 해도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 출산이 늦어진다. 또 출산을 한다 해도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으면 여성은 복직을 포기해야 한다. 혼자 벌어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금 등을 갚아나갈 길이 요원하니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키우다 사교육비라도 보태려고 재취업의 문을 두드리려면 경력단절 여성이 느끼는 취업의 벽은 학력에 관계없이 높고도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혼남녀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 28.9%, 여자 48%로 나타났다. 기혼남녀는 자녀를 2명 정도 갖기를 원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1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은 현재 남자가 33세, 여자가 31세인데 이는 10년 전보다 4세 이상 높아졌다.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요즘 강남지역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200명 하객을 기준으로 2천5백만 원, 500명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예식 비용만 그렇다. 한 웨딩업체에서 조사한 결혼비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2억3천만 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주택자금 1억6,800만 원으로 73%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마저도 전세금 정도이다. 남자가 지는 짐이 더 크다. 평범한 서민에게 특히 노후대책을 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이나 예비신



“물론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다든가
결혼이 모든 것의 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것보다 책임과 고통도 따른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배우자 선택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줘야 하는 책임도 있다.”

랑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이라도 하면 초봉 비율이 적용된 액수만큼 대출이 되지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무직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품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대중들은 종종 외신이 전하는 세기의 결혼식 뉴스를 접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달나라 이야기 같아 허탈하다. 지난해 12월 12일 인도에서는 1억 달러(1,130억원)를 쓴 슈퍼프라임급 금수저들의 결혼식이 있었으니 아시아 최고 갑부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의 딸 이샤 암바니와 피라말그룹 회장의 아들 아난드 피라말의 결혼식이었다. 힐러리 클린턴, 비운세, 에릭슨 외에 HP, 골드만삭스, JP모건의 최고경영자들, 한국에서는 S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27층 저택에서 수일간 진행된 이 결혼식을 위해 전세기가 100여 차려 VIP들을 실어 날랐다고 한다. 내가 어린 시절 접한 세기의 결혼식도 있었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미망인 재클린이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한 사건이었다. 돈 앞에 영부인의 지조를 버렸다며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찼던 기억이 있다. 재클린 여사는 남편이 암살된 지 5년 후 시동생 로버트 케네디마저 암살되자 공포감에 시달렸고 재력과 힘을 갖춘 오나시스야말로 자신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오나시스는 오래 전부터 그녀를 연모해왔지만 그들의 결혼생활은 불과 2년이 못되어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사랑해서 한 결혼도 현실에서 허덕이며 살다보면 그 사랑이 환멸로 바뀌기 쉬운데 부와 명예가

동기가 된 결혼은 곧 한계를 드러낸다. 세기의 이혼도 있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가 전 폭스 앵커 로렌 산체스와 바람을 피워 전처와 이혼하면서 합의금으로 내놓은 돈이 75조원에 이른다.

이 정도 부자들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한국에서의 결혼 비용은 빈부 차가 크다. 시어머니 될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실생활에 별 필요도 없는 병풍 하나에 수억 원을 들여 혼수를 해가는 집안을 본 적이 있다. ‘결혼’에 대한 준비보다 ‘결혼식’에 대한 준비에 치중하는 풍속도 문제이지만 아내와 남편, 며느리와 사위, 부모로서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진 사회구조가 안타깝다.

직장이 없는 청년은 경제력이 반체하지 않으니 결혼할 엄두를 못 내고, 전문직에서 일하는 인력은 너무 바빠서, 혹은 현재의 삶이 편하고 익숙해서, 본인이 나이 먹어가는 걸 자각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혼하기 좋은 도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 결혼의 중요성을 어필하는 강좌 개설, 데이트 핫플레이스나 프로포즈존 조성, 썸타는데이 제정,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이자 지원책에 출산장려금도 경쟁이라도 하듯 대폭 올리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6세 미만 자녀수당 지급정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마련, 결혼자금 지원, 어린이집 운영확대 등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계속되어야 한

다. 사회에서도 기혼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아빠들의 육아휴직 등 기업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과다한 혼수문화 자체 등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결혼시즌이 되면 유복한 가정의 자제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커플들의 청첩장도 많이 받고 싶다.

크리스천이 더 결혼하기 힘들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은 더욱 어렵다. 극동방송 재직 당시 수년간 제작진행을 맡았던 ‘김수민의 해피패밀리’라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공개구혼 코너가 방송된 날이면 전국에서 부모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전문 커플매니저도 아니었지만 자녀들의 짝을 찾아달라는 애절하고도 간곡한 호소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일단 연락처를 받아놓곤 했다. 그런데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던 분들이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학력, 외모, 직장, 집안, 재력, 장래성 등을 따졌고 거기에 믿음까지 좋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으니 부모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모 대학의 명예교수인 한 장로님의 가정에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딸이 있었다. 특히 아들은 첫사랑이 이혼녀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헤어지게 만든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으로 나이 50세가 넘도록 혼자 살며 결혼 권유만 하면 벌컥 화를 낸다고 탄식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는 원리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하나였다가 갈라지는 시점에서 그 성공 여부가 가려진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결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알려주셨다. 그러나 유교의 뿌리가 깊은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독립과 불효의 차이를 혼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사실 결혼은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에덴동산에는 사랑과 결혼, 생육과 번성, 일터와 풍성한 먹거리, 생태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있었다. 죄로 인해 이 모든 축복이 단절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물론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다든가 결혼이 모든 것의 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것보다 많은 책임과 고통이 따른다. 자신의 일을 하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한국 문화에서 미혼 청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순조롭게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도 있다. 가장 중요한 이 일에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난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동작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한국어 교육

지난해 5월,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을 수용할지 말지를 두고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이다. 난민이 누구이고, 왜 발생하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려는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난민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시도는 곤란하다. 특히 교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그네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일을 동작공동체가 하고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동작공동체가 난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치유와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인 2천 명을 대상으로 내국인, 외국인, 이민자 간의 사회갈등 수준을 조사했는데 난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난민과의 사회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무려 84.9%에 달했다. 난민과의 사회갈등 수준은 외국인 근로자(62.6%), 결혼이민자(33.6%), 이민자의 2~3세대 자녀(22.4%), 외국인 유학생(8.4%)보다 훨씬 높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이 그 따가운 시선과 냉대와 차별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난민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한국 사회의 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무너지면 다문화 시대는 곧 재앙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려면 언어문제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직업을 얻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더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떠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난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선물해야 한다. 난민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빠르고 좋은 적응이 없다.

난민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 타이슨 씨(가명) 저를 보고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동작공동체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에서 난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글 낱말카드, 기초 한국어 책자, 구글 번역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있다. 동작공동체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을 찾은 난민들에게 잃어버렸던 소망과 기쁨을 되찾아주고, 온전한 치유와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일대일로 진행된다. 난민들의 한국어 수준이 모두 다르고, 단체 수업을 힘들어 하는 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대일로 짝을 이뤄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는데 그 효과가 빼어나다.

동작공동체 성도들은 기도로 수업을 준비한다. 그 과정부터가 은혜다. 동작공동체 성도들이 준비한 수업을 통해서 난민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수업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동작공동체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수업을 들은 난민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익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적응 속도 또한 빠르다.

그 비결은 재미있는 수업과 격려와 응원이다.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난민들이 자신의 발음이 어눌하고 어색한 것을 아는지 쑥스러워 고개를 꼭 숙이면 동작공동체 성도들이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쏟아냈다. 난민들은 동작공동체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 덕분에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 되고 있다.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 덕분에...

지난해 12월 피난처에 입소한 타이슨 형제(가명, 48세)는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왔다. 지금도 가족만 생각하면 눈시울을 붉힌다. 그는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앙골라에 남겨둔 채 어렵게 한국행을 선택해야 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그가 앙골라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온 가족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타이슨 형제는 한국어를 하루 빨리 익혀서 직업을 얻고,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가족들을 데려오는 게 유일한 꿈이다.

타이슨 형제의 안타까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작공동체 성도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작공동체 성도들이 전해주는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타이슨 형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동작공동체 성도님들이 매주 오셔서 한국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섬세한지 발음 하나하나를 직접 봐주시고 교정해주십니다. 입모양은 어떻게 해야 하고, 발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늘 지지해주고 격려까지 해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푸크르(가명, 38세)

형제도 동작공동체 성도들 덕분에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한국어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동작공동체 성도님들이 가르쳐주시는 한국어 수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 첫 시간에 숫자를 배웠는데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더라고요. 늘 동작공동체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 헌신, 섬김 그리고 기도

동작공동체는 지난해 12월부터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교체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난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다 한국어 교육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달부터 난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윤승지 집사(동작공동체)는 난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을 돕지 않고서는 건널 수가 없었다.

“나그네와 고아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민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연 집사(동작공동체)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 동작공동체 선교기도모임을 통해 난민들을 위한 기도부터 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들에게 선불리 복음을 전하면 안돼요. 그 대신 우리의 진심어린 섬김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지를 알게 해주면 돼요. 그게 곧 선교이자 전도거든요. 난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위하여 동작공동체 선교기도모임에서는 난민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동작공동체는 한국어 교육 외에도 꽃꽂이수업, 의료기관 연계 프로젝트 등 난민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고 있다.

문의: 010-7197-2812

“한반도 평화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핵 문제와 해결방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또 다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던 국제사회의 고민과 우려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 엄중한 시점에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아주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세미나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핵 문제와 해결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통일세미나에서는 북핵문제 이해관계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난 3월 9일(토) 통일위원회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 핵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개최했다. 2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통일세미나에서는 태영호 공사(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김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미국, 이태환 박사(세종연구소)가 중국, 이지수 교수(명지대학교)가 러시아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설명했다.

북한의 ‘선 평화 후 비핵화’ 도식

태영호 전 공사는 “남한 사람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평양에서는 매년 핵전쟁 대비 훈련을 2-3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북핵문제에 너무나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왜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북한의 계획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수시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선 평화, 후 비핵화’라

는 도식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면서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라는 문장을 보면 북한의 선 평화 후 비핵화 도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그렇다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선 평화 후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견 또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 태영호 전 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정의가 다른데다 제재의 기준이 핵인데 비핵화 전에 제재를 풀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정식으로 풀어야 하고, 북한은 핵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태영호 전 공사는 ‘체제보장’과 ‘통일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북핵문제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핵문제는 북미 양국 간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용된다는 것은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유지한다”는 뜻이라며 북미협상의 모순을 꼬집으면서 “향후 한반도가 통일할 때 북한 정권, 김정은 일가, 주민 중에서 누구를 통일의 주체로 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창수 박사는 미국의 시각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빠른 합의보다는 올바른 합의를 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핵화 지지

이태환 박사는 중국의 시각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했다. 이 박사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문

제에 대한 시각 차이도 언급했다. “미국은 일괄적인 비핵화를 바라지만 중국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는 나쁠 것이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지수 교수는 러시아는 어떤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4차 회담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가장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적으면서 구소련 해체 당시 많은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건너간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황의서 장로는 “앞으로 북미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통일에 있다”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동북아 정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영호 전 공사에게 듣다



태영호 전 공사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북한 주민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원산(갈마 해수욕장), 삼지연 등지에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특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그곳에 관광객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허락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관광 특구는 현지인들과 철저히 차단된 지

역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북한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물질만능주의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 대신 건강한 생각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배급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가내수공업업을 하고, 장마당에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서 받은 월급이 모두 김정은에게 현금으로 전달됐습니다. 주민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 간 이유는 간식(초코파이)이나 남는 원자재 등을 팔아서 적지만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해도 곧바로 주민들이 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빼앗긴다고 해도 직접 돈을 만져봤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3만여 명의 해외 노동자가 있는데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전부 북한 정권에 송금을 하고, 북한 정권은 해외 노동자가 죽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노동자들이 외국 물정을 보니까 상품권은 터무니없는 처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항의를 했고 지금은 현금을 일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에 자본주의를 주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FA 16기를 만나다

“청년이기 때문에 갑니다!”

황금 같은 시기에 FA를 가는 이유

오늘(1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예배와 양재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FA(Frontier Agency, 청년 단기선교 프로그램) 16기 파송식이 있다. 청년선교사 23명이 복음 들고 열방으로(일본, 네팔, 인도네시아)으로 떠난다. 청년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황금 같은 시기,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 왜 그들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떠나는 걸까? FA 16기 나혜정(허브공동체), 나현주(하늘공동체), 이소윤(허브공동체) 자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청년이기 때문에 갑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FA 16기(좌측부터 나현주, 이소윤, 나혜정 자매).

‘FA(Frontier Agency)’는 하용조 목사의 소망으로 시작된 ‘청년 단기선교 프로그램’이다. 하용조 목사는 청년 10만 명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고자 했고, 그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명이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했다. 그렇게 시작된 FA가 벌써 16기 파송을 앞두고 있다. 2011년 FA 1기를 파송한 이래 지금까지 청년 233명이 헌신했다. FA 16기 청년 23명은 네팔, 일본, 인도네시아로 파송된다. 약 5개월 동안 선교사들을 도와 관계전도, 성령 사역, 어린이사역 등을 감당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FA를 다녀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학업과 생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헌신하는 이유가 있다.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이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이다.

“복음에 빛진 자이기에...”

나현주 자매는 복음에 진 빛을 갠기 위해서 FA에 뛰어 들었다.

“대학 입학 이후에 가정문제, 가치관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 휴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배행삼 목사님(하늘대학부)이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으신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정말 복음에 빛진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FA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저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소윤 자매는 FA 홍보 영상을 제작하다가 FA 16기에 참가했다.

“매번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청년들이 FA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느 때와 같이 FA 15기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자주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FA 15기 청년들의 간증을 듣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1년을 준비해서 FA 16기에 참가했습니다.”

나혜정 자매는 대학부 연합수련회에서 FA에 헌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대학부 연합수련회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아이들과 제가 함께 뛰놀고 공부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연합수련회의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FA신청서를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그다음 주 대학부 예배에서 비슷한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 있던 순장님께 FA 신청서를 드렸더니 순장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FA훈련에 참여하면 Acts29비전빌리지에서 3주 동안 합숙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FA

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 훈련 기간 동안 청년들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시간은 꿀보다 달았다

나혜정 자매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이런 어려움까지도 나눠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소윤 자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다.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훈련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도 있었다. 나현주 자매는 “심리검사 등 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훈련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훈련 기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꿀보다 달았다. 합숙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나현주 자매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됐다.

“자꾸 넘어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시므온과 안나)홀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저 말고도 많은 지체들이 그곳을 찾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소윤 자매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훈련 받으면서 제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

엇인지 FA훈련을 통해 배웠어요. 제 안에 진정한 사랑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혜정 자매는 겸손을 배웠다.

“인도네시아에서 유년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가게 되면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힘을 모아 함께 해야 하는데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서 회개했어요. FA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이소윤 자매는 일본, 나현주 자매는 네팔, 나혜정 자매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예정이다. FA 16기 청년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다른 각오도 밝혔다. 이소윤 자매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작은 창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혜정 자매는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현주 자매는 “사도행전 29장의 작은 부분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FA 16기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중보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된다며 기도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소윤 자매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현주 자매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고, 나혜정 자매는 “제가 먼저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아도 FA 16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하면 된다. FA중보기도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진행된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9-62805

(예금주: FA무브먼트)

문의: FA 담당 간사 010-4504-0833

TIM 사무실 031-336-1042

서서평, 장병들의 마음을 녹이다!

군선교팀, 영화 서서평 상영회 관객 9만 명 돌파

막이 내린 뒤 더 큰 인기를 얻는 영화들이 있다. CGNTV가 제작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도 그렇다. 영화 서서평은 2017년 개봉 당시 관객 12만 명을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상업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 영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기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영화, 서서평의 감동이 지금 대한민국 군부대에서 재현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의 영화 상영회가 그 중심에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관객 12만 명.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이 세운 흥행 기록이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서서평은 국내 역대 기독교 영화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렇게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질 줄 알았던 영화 서서평이 온누리교회 군선교팀과 CGNTV 덕분에 다시 깨어나 대한민국 군부대에 큰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영화 서서평을 관람한 장병이 무려 9만 명이나 된다.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영화 서서평이 전하는 메시지에 매료된 장병들의 숫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병들과 영화 서서평이 만나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군부대 교회가 부흥하고, 세례를 받는 장병들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다. 10명 남짓이던 예배 인원이 1백 명까지 증가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군부대 교회 목회자들과 군사역자들은 영화 서서평이 군선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육군 6사단에서는 사단장의 특별지시로 1만 명이 넘는 장병들 모두가 영화 서서평을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회를 250차례나 열었다. 또 다른 사단 신병교육대 교회에서는 신병들에게 영화 서서평을 꼭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군부대가 앞 다투어 영화 서서평을 상영하는 이유는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메시지가 장병들에 큰 감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서서평 돌풍이다. 군부대에서 영화 상영회를 실시하고 있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 의하면 벌써 장병 17만 명을 위한 상영회 요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장병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다.

장병들과 영화 서서평이 만나면...

영화 서서평은 2017년 개봉했을 당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장군(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이재훈 담임목사를 찾아와 영화 서서평이 장병들에게 큰 감동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장병들을 위한 상영회를 부탁했을 정도다.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만 해도 고개를 갇웃거리는 이들이 많았다. 군선교팀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이 영화를 장병들이 좋아할까?'라는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첫 번째 상영회를 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하기 위해 기다리는 군 장병들.

다. 군선교팀 김호성 팀장은 당시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보통 군부대 위문을 가면 설교를 시작하는 동시에 장병들이 눈을 감아요. 그런데 영화 서서평은 끝까지 관람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영화 상영이 끝나고 결신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리에 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군선교팀은 전국 방방곡곡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영화 서서평 상영회를 열었다. 2017년에만 약 5만 명의 장병들이 영화 서서평을 관람했다. 영화 서서평이 상영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됐다.

육군부사관학교 교회는 평소 출석인원이 40여 명 정도였다. 그런데 영화 서서평 상영회를 연 날에는 장병 150여 명이 왔고, 그 다음 주일에는 장병 50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 해군교 육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교육생 95%가 영화 서서평을 관람했고, 영화를 관람한 교육생 80%가 세례를 받았다. 공군교육사에서 입대하는 매 기수 장병들에게 영화 서서평을 상영해주고 있다. 영화 서서평 상영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영화 상영 이후에는 평균 2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한 공군 교육사 신우희에서는 장병들이 더욱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려고 대출을 받아 대형스크린을 설치했다고 한다.

영화 서서평이 장병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타종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파병을 앞둔 동명부대 21진을 위해서 영화 서서평 상영회를 열어달라며 불교 법사가 찾아온 일도 있었다. 동명부대 21진을 위한 상영회에 장병 331명이 참석했는데 그 불교 법사를 제외하고 모든 장병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동명부대 21진 전에 서서평을 관람하고 파병을 나간 동명부대 20진은 파병 이래 단 한 건의 사건사고를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부대가 되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 메시지에 매료되다

영화 서서평의 영향력이 대단해질수록 타종교를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몇몇 종교에서는 영화 서서평과 비슷한 내용의 상업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영화를 보면서 먹을 간식으로 장병 1인당 치킨 한 마리를 보장하고, 천장에 빔을 쏘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타종교에서 장병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간식 햄버거 300개를 준비했는데 거의 찾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더 이상 재미와 맛있는 간식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 군선교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최근 군대에서는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변

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일과시간 외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주말에 외출, 외박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또한 장병들이 전보다 넉넉한 월급을 받고 있다. 군이 종교행사에 가지 않아도 더 재미있고 더 맛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때 문인지는 몰라도 몇몇 군부대 교회에는 장병들의 예배 출석률이 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제 군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재미와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진짜 복음과 감동이 필요하다. 장병들은 가슴을 울리는 감동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성일 목사(전 한국군종목사단장, 평택대 광고회)는 서서평 선교사의 삶 자체가 장병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줬다고 평가했다.

“서서평 선교사가 타국에 와서 섬겼듯이 장병들도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 자체가 장병들에게 어떻게 군 생활을 해야 할 지를 알려주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에서 섬김의 삶이라는 가치관을 심어 준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은 목사(5사단 신병교육대)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장병들이 영화 서서평을 관람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화 서서평은 신자나 비신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 서서평을 본 장병들이 ‘값없이 주는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 ‘선교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5사단 신병교육대는 앞으로도 꾸준히 영화 서서평을 상영할 것입니다.”

군선교팀 김호성 팀장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1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을 위한 상영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한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 서서평을 보고 싶어 하는 단 한 영혼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영화 서서평 상영회를 위한 기도와 후원도 당부했다.

군선교팀 영화 서서평 상영회 뿐만 아니라 ‘CGNTV 찾아가는 상영회’를 요청해도 영화 서서평을 볼 수 있다. CGNTV가 직접 서서평을 아직 관람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 상영회를 열어준다. 관람인원 10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서빙고 군선교팀 010-2208-0881

CGNTV 찾아가는 상영회 02-796-1118

W청년부 그랜드 오픈예배

3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



W청년부가 새로운 예배장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W청년부가 예배처소 이전을 감사하는 그랜드 오픈예배를 다음 주일(24일) 오후 2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드린다.

W청년부는 지난 3일부터 여의도 정곡빌딩 4층(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예배, 순도모임, 바이블아카데미, 홀리스타도 이곳에서 진행하

고 있다.

김윤식 목사(W청년부 담당)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W청년부가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W청년부를 통해서 여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W청년부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번에 오픈한 새로운 장소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새로운 청년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02-3215-3744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가족다움 Family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4월 6~20일 GLC센터와 Acts29비전빌리지

유엔아카데미팩트(UN Academic Impact, UNAI) 한국협회에서 개최하는 ‘제4기 가족다움 Family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워크숍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이태원 GLC센터(1, 2주차)와 Acts29비전빌리지(3주차, 1박2일 캠프)에서 열린다.

제4기 가족다움 Family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은 ‘가정의 토양이 건강

해야 자녀의 씨앗이 온전히 자란다’를 목표로 진행되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이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전인적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미래인재를 양육하도록 돕는다.

‘Family 세계시민교육’, ‘성경적인 가정이란’, ‘발달과정과 양육’, ‘부모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십계명과 하나님 관계, 부모관계’, ‘유대인 교육과 하브루타’, ‘서로 다른 남

편과 아내’를 주제로 유종근 운영위원장(UNAI), 조은하 교수(목원대), 유진상 교수(히브리대학교), 정강욱 대표(진로와소명 연구소) 등이 강의한다. 자녀들을 위한 놀이프로그램도 있다. ‘존중 움직임을 놀이’, ‘사랑 그림 놀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눈 맞춤 하이파이브 댄스’, ‘책임감 온가족 놀이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소속 젊은 부부 15가정(부부, 자녀)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가족 당 20만 원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4161	김찬희	갈렘	1134187	송상운	허브	1134212	송재현	부천 소망	1134240	안근영	SNS
1134162	이상림	송파B	1134188	손성민	허브	1134213	조민석	인천Web	1134241	손 결	SNS
1134167	천길백	웅산	1134189	신민욱	허브	1134214	최정희	동대문중앙	1134242	김수미	SNS
1134168	황숙희	웅산	1134190	송영조	양지 서누리	1134215	김혜정	인천 소망	1134243	이금나	SNS
1134169	정주은	하늘	1134192	김정우	인천Web	1134216	이슬기	여호수아	1134244	박주은	SNS
1134170	황주희	평택	1134193	서준교	대전 동누리	1134217	이재은	J4U	1134245	조가영	SNS
1134171	선여원	Bridge33+	1134194	최재정	부천 믿음	1134218	신승준	J4U	1134246	심혜량	SNS
1134172	최진희	한터공동체	1134195	박해진	신용산	1134221	이선희	Bridge33+	1134247	전우경	SNS
1134173	고세욱	부천 사랑	1134196	이지원	가정사역	1134222	이혜민	S브릿지	1134248	조혜진	SNS
1134174	황정애	남양주C	1134197	배정민	강남C	1134223	박정원	요셉	1134249	홍서영	SNS
1134175	전병준	남양주C	1134198	전완근	강남C	1134224	엄영래	요셉	1134250	유다영	SNS
1134176	이지선	도곡	1134199	장은비	일산	1134226	송진성	요셉	1134251	이은나	SNS
1134177	김민규	Point5	1134200	이지현	성동광진	1134227	이세림	요셉	1134252	조준화	SNS
1134178	박철웅	신용산	1134201	전용기	Bridge33+	1134228	권성은	요셉	1134253	강신호	SNS
1134179	임정숙	인천 사랑	1134202	김정환	인천 소망	1134229	이준화	J4U	1134254	신동아	SNS
1134180	이영미	인천 믿음	1134203	강현하	서산온누리	1134232	오정택	푸른누리	1134255	조서영	SNS
1134181	구분영	인천 믿음	1134204	이소진	J1	1134233	박상범	갈렘	1134256	박소연	하늘
1134182	김요한	Gil	1134205	서예현	J1	1134234	김민지	허브	1134272	나 북	인천 소망
1134183	조해심	수원 남누리	1134208	이승주	강남D	1134235	박효연	양재	1134273	김태경	SNS
1134184	박진한	대전 Belief	1134209	박정혜	중종로	1134237	한창희	인천 소망	1134274	전예지	하늘
1134185	강혜영	부천 화평	1134210	진윤호	인천Web	1134238	조인선	SNS	1134275	이예진	부천 Dream
1134186	김혜숙	남양주 행복하나	1134211	박대근	인천 사랑	1134239	김동욱	SNS			

성경 가르치는 것 교회, 교사, 부모 뒀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타협의 거센바람’ 1,200명 참석

지난 1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타협의 거센바람’ 그 두 번째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차세대 교사, 부모, 목회자 1,200명은 다음 세대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도 참석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교사와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재훈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 대표)가 ‘진화론

의 반대는?’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선교사는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라 성경”이라며 “진화론이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사, 부모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증한 김두환 교사(양재 등부)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교에서 기도모임을 갖는 것조차 어렵지만 교사들이 교단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엄빠랑 바이블코딩’ 참가자 모집

코딩과 프로그래밍 기초 배우는 프로그램

온누리 로그인 사역팀이 실시하는 ‘엄빠랑 바이블코딩’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엄빠랑 바이블코딩은 성경이야기를 활용해서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부모다. 교육은 4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문의: 02-3215-3651 이경희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남양주 ‘새사모팀’ 신촌 정보통신학교 방문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사모하는 팀(이하 새사모팀)이 지난 3월 9일 신촌 정보통신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새사모팀은 신촌 정보통신학교 청소년 80여 명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남상현 팀장은 “새사모팀의 사랑

을 통해서 신촌 정보통신학교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새사모팀은 2016년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신촌 정보통신학교에서 금요일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 권한승 기자 kcs123@onnuri.org



시즈오카 기 · 도 · 제 · 목

- 3월 18일(월) 시즈오카러브소나타 통해 많은 미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 3월 19일(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일본 전역에 영적 부흥이 퍼져나가기도록
- 3월 20일(수) 모든 협력교회들이 러브소나타의 중요성을 설교하도록
- 3월 21일(목) 시즈오카에 있는 교회들이 러브소나타를 통해 연합하도록
- 3월 22일(금)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 3월 23일(토) CEO포럼, 교회 세미나, 가스펠나이트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 3월 24일(주일) 담임목사님과 출연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권세를 더하도록

■ 차세대 르완다 아웃리치 간증



/ 이보혜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나와 내 동생이 아프리카 르완다 아웃리치를 가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가족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 세상의 소식지에 나와 있는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소년부에서 NGO 더멋진세상이 르완다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고 나와 주안이가 르완다로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나는 르완다에서 힘든 일과 좋은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르완다 응호 망과마을에는 NGO 더멋진세상이 세운 EC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센터가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영양죽을 나눠 주었다. 함께 찬양도 불렀다. 아이들은 티 없이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찬양이 주는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ECD센터에 있는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르완다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이틀 동안 르완다 가후도마을에서 평화의 집짓기를 했다. 나는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옛집을 봤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고 집안이 매우 어두웠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곳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했다.

집짓기 둘째 날에는 몇몇 팀원들이 크게 싸웠는데 곧 눈물을 흘리며 서로 사과했고 관계가 금방 회복되었다. 전보다 훨씬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다. 또 아웃리치 중에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이들의 몸이 많이 아팠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다. 기도의 힘은 정말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한국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었다.

처음 가본 아프리카였는데 큰 탈 없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과 르완다에 계신 선교사님들, ECD센터 아이들, 우리가 방문한 크리스천 가정집, 르완다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나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최하람, 김하선 선교사(남아시아 1국)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꼭 안아주고

남아시아 1국의 우기가 한창일 때 우리팀은 천둥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뚫고 사역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팀은 주님께 맑은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산에서 큰 돌이 굴러와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기도를 드리며 묵묵히 나아갈 때 폭우가 잠잠해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남아시아 1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수업을 통해서 학업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제대로 모르고 지나간 수학과 영어의 기초를 배우고 한 단계씩 실력이 올라가고 있었다.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못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우리는 날

씨가 안 좋아도 아이들과 약속한 만남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다.

몇 주 전에는 이슬람 종교학교의 중학생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나는 학생들에게 질병과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학생들을 만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이 기회를 통해 겨자씨 같은 복음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한다.

우리팀도 공부방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주님은 우리만큼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이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선물을 주거나 완벽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을 찾아가고, 기도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사랑의 씨앗을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막10:16).

창조과학탐사 후기

정원이 실장
(CGNTV 커뮤니티
케이선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됐다. 의심해보지 않았지만 깊이 이해하지도 못했던 창조의 역사. 그 흔적을 찾아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창조과학탐사에 참가했다.

창조과학탐사의 여정은 노아홍수부터 시작된다. 미국 그랜드캐니언과 브라이스캐니언 등을 탐사하면서 현재의 지형이 오랜 시간 쌓이고 깎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홍수와 같은 전지구적 사건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랜드캐니언의 장엄한 풍경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홍수 심판의 흔적이라니... 지층에 대한 상식이 모두 깨지는 순간이었다. 지층 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도 노아홍수의 증거이다. 화석이 형성되면 생물이 살아있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매몰되어야만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생물이 도망갈 여지도 없이 빠르게 퇴적물에 묻혀 버렸다는 것은 노아홍수와 같은 격변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여러 격변의 흔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은 어떠했을지 상상해보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랜드캐니언.

던 창조의 시대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그랜드캐니언은 지구상에서 창조 때와 심판 때의 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랜드캐니언에서 창조 때의 땅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모든 생물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등동물로 여기거나, 때로는 우월하게 혹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창조로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동물 중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진화론이 성립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동안 단

순한 동물이 더 복잡하게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생물도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었다. 불충분한 증거가운데도 과학적이라는 이유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진화론의 영향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났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은 여러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 타협이론이 만들어졌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창세기를 왜곡 해석하는 시대 가운데 다음세대는 성경이 진리인지 의심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의 기원을 찾으려는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여정

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넘어서고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보이는 것이라 해서 모두 증명 가능하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여정이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기초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말씀을 공격할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진화론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 30:6).

CGNTV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논란거리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고 답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CGNTV를 통해 다음세대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의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더 말씀 앞에 깨어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나가리라 다짐해본다.

장로칼럼

61만 장병들을 위하여



나영욱 장로
(송파A공동체)

2004년 온누리교회에 군선교팀이 신설됐다. 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대표 장로님께서 군선교팀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장로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군선교팀을 섬겼다. 하지만 장병들을 만나면서 내 안에 젊은이들과 다음세대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 시작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점에 군선교는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신병교육대를 비롯한 각 부대에서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평균 300명 정도의 장병들이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준비한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많은 장병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한다. 세례를 신청하는 장병들도 많다. 그 장병들은 군교회에서 세례교육을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난다.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 덩치가 산만한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군선교팀 담당 장로로 3년, 팀장으로 5년 동안 헌신했다. 작년에 군선교팀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중보기도로 군선교팀을 돕고 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다음세대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

우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군선교팀에 많은 부분을 지원해줬다. 그 덕분에 많은 장병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군선교팀은 집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도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재작년부터는 CGNTV가 제작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장병들에게 상영해주고 있다. 팝콘도 직접 만들어서 나눠 주고 있다. 장병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장병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많은 장병들이 엄격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지내다보니 문화에 대한 갈급함이 많다. 그래서 영화를 상영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군선교팀이 장병들과 개인적인 교제가 쉽지 않다.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쉽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군선교팀이 제대학교에서 장병들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제대학교는 제대를 앞두고 있는 장병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부대행사이다. 군선교팀에서는 이 행사에서 신앙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 장병 수가 줄어들어 63만 명에서 61만 명이 되었다. 장병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 자살, 구타, 폭언 등 군대의 안 좋은 문화들이 많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문화가 군대 안에 만 들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군 안에서 많이 일어나 모든 부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길 소망한다.

권사칼럼

나에게 일어난 변화



지연희 권사
(한강공동체)

2012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때 공동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등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찾아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장례 일정에 함께 해주셨다. 당시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오랫동안 공동체 사역도 권사회 활동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하여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때가 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작게라도 위로하리라 결심했다.

3년 전 퇴직을 한 후로는 권사회 사역에 참여하면서 장례와 병원심방을 따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전혀 생각지 않게 2018년 공동체 대표 권사로 지명을 받게 되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나는 즉시 거절했고 당시 대표 권사님께서서는 하루만 기도해 보라고 설득하셨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마음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날은 그해 마지막 월례회 날이었고 30분 전에 한 대표 권사님을 만나 “대표 권사를 맡지 못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날 황재명 목사님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는 잠언 말씀을 선포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 권사로 지명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 나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겠노라 거창한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됐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서원하였다.

공동체 권사회는 장례사역을 시작으로 월례

회, 권사스쿨, 공동체 개강예배, 종강예배, 심방과 아웃리치 등 일 년 내내 행사와 사역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가끔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늘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다보면 어느 순간 탈진한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온 마음으로 감당하되 모든 결과는 온전히 주께 맡기고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지난 1년 동안 공동체 대표 권사직을 맡으면서 내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에게 지난 일 년은 축복의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평소 존경하던 문영재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고 공동체 대표 권사로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무엇보다 너무나 훌륭하신 권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없었으면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공동체 권사님들께 감사할 드린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루어주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나는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내 평소 기질과는 달리 인내할 수 있었고 침묵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할 뿐이다.

2018년이 지나고 어느새 2019년 3월이 되었다. 각 공동체 사역이 시작되었다. 새로 직분을 맡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 비록 공동체 대표 권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송재호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나는 외교관이신 아버지 때문에 여덟 살 이후로 중동과 미국에서 생활했다. 부모님은 불신자셨고 나도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았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때는 대학시절이었다.

대학시절 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 잡지를 접하게 됐다. 기독교 잡지에 나와 있는 한 기도문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기도문에는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우기 원했고 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주중에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다. 그곳에서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 한국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하지만 미래를 조금 더 준비하고 싶은 생각에 입대 일시를 연기하고 신앙의 멘토와 상담하던 중 그분이 추천한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사실 대학원을 다닐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더욱 힘을 다해 학업에 열중했다.

신학 공부와 교제를 통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됐다. 특히 선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에는 가식과 거짓이

없었다. 그들의 삶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처음으로 영혼의 기쁨을 느끼며, 처음으로 영혼의 눈물을 흘렸다.

1994년에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군 입대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신학대학원 시절 알고 지내던 동료를 통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 참석하게 됐다. 그 당시에는 에스더 하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초등부를 섬기고 계셨는데 선교사님께서서는 나에게 영어예배 초등부를 섬겨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군 입대 전까지 파트교역자로 영어예배 초등부를 열심히 섬겼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후에 다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초등부 영어예배를 섬기게 됐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하며 보스턴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와 열바인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섬겼다. 그리고 2017년 3월 한국으

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역방향을 열어권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꾸셨다. 지금 나는 강동 온누리교회 성인공동체 중 ‘말씀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말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영어로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하고 추가적으로 교정 작업도 했다. 설교를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비되었고 번역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주시고 감싸주셨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지금은 한국말이 꽤 능숙해졌다.

온누리교회 교역자로 섬기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12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해를 향해, 달을 향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와 달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낮의 길이를 길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출애굽 역사 이후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길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통치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아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

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13~14절).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을 것을 두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일 것이다”, “잠시 빛을 가렸을 뿐이다”, “빛의 굴절로 인해서 햇빛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이성적인 해석을 해 보지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해와 달을 하나님으로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해와 달을 움직이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해와 달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이름 중에 ‘~탄’으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이 국가들은 조상 대대로 달이나 태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기에 달과 태양이 같이 있는 나라도 있고, 둘 중 하나가 꼭 있습니다. 숭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해와 달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나

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은 중요한 집회가 있어서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데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안개가 언제 사라질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에 늦어본 적이 없고, 취소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안개는 건널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마친 즉시 안개가 걷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때마침 그렇게 된 것이겠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중국개혁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되는 모든 위대한 일에는 언제나 세 단계가 존재한다. 불가능함, 어려움, 성취이다.”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렵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루어집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청교도는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믿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시칠리아로 떠난 건축여행



박흥균 장로
(양천공동체, 호서대
건축학과 교수)

지난달 은사님과 함께 건축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이탈리아 중부와 시칠리아를 포함한 남부 지역 건축물들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중 시칠리아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다.

시칠리아는 영화 ‘대부’를 통해서 처음 접했다. 2대 대부(알 파치노)의 만년의 모습과 함께 배경이 되는 마을의 여유로운 정경, 대부가 자녀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 사업가,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변신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을 잃고 절망하는 현장인 ‘팔레르모의 극장(마시모 극장: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등이 인상 깊은 도시이다.

시칠리아는 기후가 좋고 땅이 비옥하다. 그래서인지 주변 강대국의 출현에 주인이 바뀌는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시칠리아의 건축 양식을 보면 그곳을 통치한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들이 혼재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건축양식의 복합체이다. 건축물의 골격은 로마네스크인데 비잔틴 양식이 섞여있다. 노르만시대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었는데, 동로마제국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



BC 440~430년 경에 세워진 콘코르디아 신전. 시칠리아의 여러 그리스 신전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다.

잔틴 양식이 첨가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해상민족인 페니키아인들의 지배를 시작으로 BC 3세기까지는 그리스, BC 214년에는 로마가 시칠리아를 점령했다. 로마가 그리스의 신화체계와 조각, 건축법, 학문들을 계승하면서 여전히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또 9세기에는 사라센 침공으로 아랍 문화가 이식돼 11세기까지 이어졌다. 다음에는 노르만인, 그 다음에는 스페인, 사보아, 오스트리아, 영국, 다시 스페인 등 수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다. 1870년 가리발디 장군이 이탈리아를 통일한 것은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1,200년 후의 일이다. 시칠리아는 나라로서는

상처마저도 아름다움과 향기로

20만이 넘는 대도시가 3개 있었는데 본토 아테네를 제외하고 다른 두 도시(아그리젠토와 시라쿠사)가 시칠리아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시칠리아가 어떤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도 본토인 그리스보다 그리스 건축물들을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칠리아이다.

시칠리아의 건축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문화로부터 로마, 사라센, 노르만, 스페인 등의 종교와 문화가 혼재된 건축문화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었다. 시칠리아는 피치배의 아픈 기억들을 그들의 언어와 사고체계로 녹여내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이곳의 건축물들은 그 시대의 표현이고 화석이다.

우리의 현재는 직면해온 상황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 우리의 사고체계 가운데 그 모든 반응의 흔적들이 영향을 주고 나이트로 존재한다. 그 흔적들이 우리의 현재를 표현한다. 그 흔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새겨질 때 상처마저도 아름다움과 향기로 드러남을 기억하게 한다. 시칠리아는 해상교통 요충지이며,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에 오히려 상처가 많았다. 시칠리아는 그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그들이 만들어낸 건축문화는 우리에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노르만 통치시기를 제외하면 나라로서 존재한 일이 없는 곳이다. 그들을 지배하던 문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시칠리아 특유의 양식을 만들어냈다.

여행 중에 방문한 아그리젠토와 시라쿠사에는 그리스의 신전유적들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특히 아그리젠토의 그리스 신전은 최전성기인 BC 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신전이 위치한 곳이 해안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해안의 선형을 따라 솟아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칠리아의 역사는 그리스인들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에는 인구

Acts 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9년 3월 17일(주일) | 제1237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골프장 마당 주일 주자안내

내용: 예배 중에는 입출차 금지(예배 중 차

량 이동 불가), 종일 주차 불가(다음 예배 성

도들을 위해 예배 후 출차)

실시: 4월 첫 주일부터

꿈아이놀이터 32기 모집

대상: 22~38개월

일시: 3월 20일~5월 22일 매주 수

10:40~12:4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를

회비: 15만원

문의: 임지희 코치(010-6253-7397)

꿈아이놀이터 교사모집

분야: 음악, 세팅, 찬양, 데코, 반주, 소그룹,

자료 제작 등

문의: 김혜영 전도사(010-3174-8107)

CGNTV 세라핌 단원모집

일시: 매 주일 2시 30분

장소: 신관 1층 Acts29

대상: 초 2~중 3

오디션: 자유곡 한 곡

문의: 010-5958-5583

CMN 마하나임팀 여름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1일~27일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아가페기독교병원

모집: 소화기, 심장, 신장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

문의: 김의석 팀장(010-3326-8058)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CGNTV
개국 14주년성령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14**
개국 14주년

지금까지 이런 기독교 채널은 없었다!

 **유튜브 [CGNTV] 채널**

순수 복음으로 영적 회복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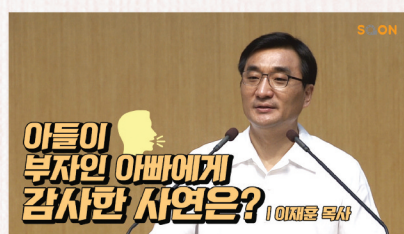
 **구독** 하면 엄선된 기독 콘텐츠를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GNTV] 채널을 검색하세요.

 **유튜브 [SOON] 채널** *3월 19일 오픈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짧고, 젊고, 쉬운 콘텐츠!

성장/신앙/사랑/찬양 등 맞춤 큐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GNTV SOON] 채널을 검색하세요.

2019 CGNTV 시청자 설문조사

참여방법: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내 설문조사 페이지 방문

조사기간: 3월 15일(금)~3월 24일(주일)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